

COMPASS

August 2016

Colorful Daegu

www.daegucompass.com

ISSUE 65

ILSANGDABANSA
DAEGU'S CULTURAL HUB

BAHN MI RICO
VIETNAMESE BISTRO NEAR
THE KNU NORTH GATE

HOW TO SAVE A LIFE
DEVELOPING THE RESCUE CULTURE
IN KOREA

**NEED A WEEKEND AWAY
FROM DAEGU?**
TRY GLAMPING IN
GYEONGJU



9 772384 155003

ISSN 2384-1559



STEP OFF THE TRADITIONAL BACKPACKER TRAIL

TAKE A TRIP TO LUANG PRABANG, LAOS



Written and photographed by Gwendolyn DeSilva
Translated by Yujeong Lee



Are you looking for an off the tourist trail destination for your next holiday? Then consider Luang Prabang, Laos. This charming, former French colony is a relatively undiscovered destination that boasts UNESCO status for its well preserved heritage; endless adventure activities from mountain-biking and trekking to kayaking; breathtaking scenery of lush green mountains and the historic Mekong river; unheard of mouthwatering cuisine; and a laid-back vibe that will transport you back in time. With flights taking as little as seven hours from Seoul and fares as low as 700,000won, it becomes a great option for a week away from Korea. In this one compact spot, consisting of only four main roads and a small population of roughly 56,000, the activities and attractions are endless. In one week you can:

다음 휴가를 위해 관광객들이 득실거리는 유명 관광지를 벗어난 곳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라오스의 루앙 프라방을 고려해볼은 어떠한가? 이 매력적인 옛 프랑스 식민지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여행지이다. 그리고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된 잘 보존된 유적지, 마운틴 바이킹과 트레킹부터 카약까지 모험가득한 수많은 체험활동, 나무가 우거진 푸른 산의 숨이 멎을 듯한 풍경과 역사적인 메콩강, 한 번도 들어보지 못 했던 군침도는 음식들, 과거로 데려다 줄 느긋한 분위기 등을 자랑하는 곳이다. 약 70만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7시간이 조금 안 되게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 한국에서 떠나 1주일 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선택한 셈이 된다. 주요 도로는 4개, 약 5만 6천명의 적은 인구가 있는 이 작은 지역에 체험거리와 관광지가 무궁무진하다. 1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Participate in a Buddhist Alms Giving Ceremony

This is a sacred Lao religious act that is best observed in Luang Prabang. As the sun rises, 200 saffron-clad monks depart from their various temples to collect daily offerings (usually rice, fresh fruit and sweets) from the locals and visitors that line the street. The etiquette involved in this 14th century tradition is extensive, so research and understand the rules before going.

탁발에 참여하기

탁발은 라오스의 신성한 종교적 의식으로써 루앙 프라방의 볼거리 중 최고이다. 해가 떠오를 때쯤면 사프란색 옷을 입은 200명의 승려들이 거리에 줄을 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공양물(보통 밥, 과일, 간식 등)을 받으며 여러 절에서 출발한다. 14세기로 부터 내려온 이 전통과 관련된 규정이 매우 많으니 탁발식에 참석하기 전에 그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한 후 참석해라.

● Cook Lao Cuisine at Tamarind

Lao food is full of intriguing flavors and the full day cooking course offered by Tamarind gives you an insight into this relatively undiscovered cuisine. The class starts with a food market tour and then whisks you to their picturesque lakeside pavilions for a multi-course meal of sticky rice and 'jeow' (a spicy dipping sauce made from fire-roasted aubergines) and lapp (a minced meat salad with fragrant herbs and bile). <http://www.tamarindlaos.com/>

타마린드에서 라오스 음식 배워 보기

라오스 음식은 아주 다양한 흥미로운 맛을 갖고 있고, 타마린드의 종일코스 요리교실은 상대적으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요리법들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다. 요리교실은 장보기부터 시작하며 그 다음으로 찰밥, '저(jeow, 불에 구운 가지로 만든 매운 소스)과 랍(lapp, 향기로운 허브와 즙을 넣어 만든 다진 고기 샐러드) 등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 식사를 만들기 위해 그림같은 호숫가의 건물로 데려갈 것이다. <http://www.tamarindlaos.com/>

● Immerse Yourself in Buddhist Temples

Dozens of well-preserved religious Buddhist temples (wats) dot the city. Two of the most striking include the gilded Wat Xieng Tong, dating to the 16th century and Wat Mai, once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Laotian Buddhism.

불교 사원에 가 보기

잘 보존된 수십개의 불교 사원들(와트)이 도시에 점점이 흩어져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두 사원은 16세기에 세워진 금박의 와트 시엥 퉁과 한 때 라오스 불교의 수장이 살았던 와트 마이이다.

-continued on p40-



● **Ride an Elephant at the Elephant Village Sanctuary and Resort**

This is a controversial activity, one I ethically debated a long time before doing. I carefully choose this sanctuary, as it provides a picturesque home and new, abusive-free jobs for rescued elephants that were previously working in the forest industry. The full day mahout experience includes training on how to control this 3 ton animal, a 3km ride on a howdah (elephant seat), a bareback bathing experience in the Nam Khan river, and a banana feeding session to say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http://www.elephantvillage-laos.com/about/>

코끼리 마을 보호구역 및 리조트에서 코끼리 타기

코끼리 타기는 필자가 실제로 해 보기 전에 윤리적으로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체험이다.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이 보호구역을 골랐는데 이전에 산림산업에서 일을 하다가 구조된 코끼리에게 그림같은 집과 학대가 없는 새로운 일을 찾기 때문이었다. 코끼리 조련사 종일 체험은 3톤짜리 동물을 컨트롤하는 훈련, 하우다(코끼리 등 위에 올리는 좌석)에 타고 3km가 보기, 남칸강에서 코끼리 등 씻기, 하룻 동안의 체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바나나 주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tp://www.elephantvillage-laos.com/about/>

● **Swim the Waterfalls of Kuang Si and Tad Sae**

Breath-taking waterfalls abound in this area. Two popular options include Tad Sae and Kuang Si. Many organized tours, such as elephant riding, include trips to one of these falls as part of the overall package, so work out if an included visit is part of a paid tour before you arrange a private trip. My favorite was Kuang Si Falls, which are easily reached by hitching a ‘taxi’ truck ride to the spot 29km out of town. Here a three tier waterfall collects in numerous turquoise colored

pools before continuing downstream. Other attractions include a bear sanctuary, a butterfly garden and local food stalls.

망시폭포와 땃새폭포에서 수영하기

루앙 프라방에 있는 숨이 멎을 듯할 멋진 폭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인기가 있는 두 폭포는 땃새폭포와 망시폭포이다. 코끼리 타기와 같이 투어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패키지 내에 땃새폭포와 망시폭포 중 하나에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폭포로 가는 것이 패키지 투어의 일부분이라면 자유 관광을 계획하기 전에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다. 필자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망시폭포였는데 마을에서 29km가 떨어진 곳까지 ‘택시’ 트럭을 얻어 타고 쉽게 갈 수 있었다. 그리고 하루로 폭포가 더 이어지기 전에 세 단으로 된 폭포가 여러 개의 청록색 풀로 모아진다. 다른 관광지로는 곰 서식지, 나비 정원, 지역 음식을 파는 가판대 등이 있다.

● **Pray at Pak Ou Buddha-filled Caves**

To get to this site, you will have to embark up the historic Mekong River by traditional long boat. The two hour ride delivers you to the limestone hillside caves, which are filled with thousands of gold-lacquered Buddha statues ranging from a few centimeters tall to the height of a human.

불상이 가득한 백우 동굴에서 기도하기

백우 동굴에 가려면 전통 롱보트를 타고 역사적인 메콩강을 타고 가야 한다. 2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면 산비탈에 있는 석회암 동굴에 도착하게 되는데, 몇 센티미터짜리부터 사람키만한 크기까지 금칠이 된 수천개의 불상으로 가득 차 있다.

● **Weave a Bamboo Basket at OckPopTok**

Meaning ‘East Meets West’, this social enterprise works with local women to create modern textiles and handicrafts. They have an extensive show-room downtown, where you can pick up a souvenir. Alternatively,

take their free tuk-tuk to their out of town Living Crafts Centre where you can enroll in a bamboo basket weaving workshop, enjoy a relaxing afternoon tea or spend the night in one of the luxurious rooms with verandas overlooking the Mekong. <http://ockpoptok.com/>

옥포톡에서 대나무 바구니 만들기

옥포톡은 '동양이 서양을 만나다'라는 뜻의 사회적 기업이며 현대적 옷감과 수공예품을 만드는 지역 여성들과 함께 일한다. 빈 화가에는 기념품을 살 수 있는 커다란 쇼룸이 있다. 아니면 옥포톡이 제공하는 무료 특등을 타고, 대나무 바구니 만들기 워크샵에 참가할 수 있는 마을 밖의 리빙 크래프트 센터(Living Crafts Centre)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센터에서 느긋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거나 메콩강이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가 딸린 고급스러운 방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도 있다. <http://ockpoptok.com/>

● Roll Out Your Yoga Mat at Utopia

Overlooking that NamKhan River, this outdoor yoga 'studio' is perched on a high wooden deck. Part of a groovy travelers cafe/bar/lounge, it is worth seeking out the directions to this secret hideaway. <http://www.luangprabangyoga.org/class-location.html>

유토피아에서 요가 배우보기

이 야외 요가 스튜디오는 남칸강을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자리잡고 있으며 나무 데크 위에서 열린다. 또한 이 곳은 근사한 여행자들의 카페 겸 바 겸 라운지의 일부부이어서 이 비밀스러운 은신처로 가는 방법을 알아볼 만하다. <http://www.luangprabangyoga.org/class-location.html>

● Hike Phu Si to watch the Sunset

Protruding out from the middle of city centre is the 100 meter tall hill of Phu Si, which is dominated by a gilded stupa. Head up just before dusk to watch the sunset and take in 360 views of the city. Get there early though as this is a popular tourist haunt on clear days.

푸 씨 산에서 석양 보기

해발 100m의 푸 씨 산은 도시 한 가운데 빼죽 솟아있는데, 금박을 입힌 탑이 가득한 곳이다. 일몰을 보고 도시를 360도로 조망하려면 땅거미가 지기 전에 출발하는 것이 좋다. 이 곳은 맑은 날에 특히나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으니 일찍 가라.

For more information, visit my blog at: www.memoriesnotmaterialthings.com
더 많은 정보는 필자의 블로그인

www.memoriesnotmaterialthings.com에서 찾아보길 바란다.



- OPEN: Weekday, SAT 12pm~2am
SUN 12pm~12am
- BREAK TIME: 3pm~5pm (every day)
No holidays

AMERICAN
SOUL FOOD

BBQ / Lobster roll / Burger / Sandwich / Pasta
Mac and cheese / Barbecue bean / beer

DO YOU MISS HOME ?
COME TO TWO BEARS MARKET !

Show us your Allen Registration Card (ARC)
and get 5% discount

Address: 183, Yonghak-ro, Suseong-gu
Dusan Intersection

Susung lake Starbucks

TWO BEARS MARKET